배당률이 50대1인 예수이름에 걸자

(히2:5~10)

5.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6.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7.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8.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9.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0.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배당률이 50대1인 예수이름에 걸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벌써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배당률이 나오고 걸자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경마가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경마 얘기를 비유로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경마는 경주마에 돈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경주마에 올라타고 달리는 게 아니고 그 경주마의 이름에 우리의 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이름이 가리키는 그 말이 경주에서 일등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영원히 미지수입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경주에서 뛰는 말들의 정보를 얻고, 최대한 우승의 가능성이 높은 말에 돈을 걸지만, 경주 결과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경마가 끝나고 나면 경마장 주변이 온통 휴지가 돼버린 마권들 때문에 쓰레기장이 돼버립니다, 뭐 가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기분 나쁘니 휴지통에다 얌전히 버리겠어요?

여러분, 2014년 올해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영어로 제목이 <Fifty to One>이에요, 50대 1.
50대 1이 배당률을 의미합니다.
켄터키더비라고 하는 미국의 경마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가 미국에서 가장 큰 최고의 대회입니다,
2009년에 이 켄터키더비에서 '마인 댓 버드(Mine That Bird)'라고 하는 세 살짜리 말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 켄터키더비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1년에 미국 전역에서 만 마리에 달하는 경주마가 태어나는데, 그 경주마들 중 한 살, 두 살, 세 살짜리가 경주마로 한참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켄터키더비는 세 살짜리 말들이 출전하는 경주로 20마리만 출전을 합니다.
그러므로 켄터키더비에 출전자격을 얻는 것조차가 하늘의 별 따기에요.
세 살짜리들이 만 마리가 있는데 그 중 20마리를 골라내는 거니까.
그러면 대체 마인 댓 버드라고 하는 말이 뭐가 특별하기에 영화까지 만들고 난리냐? 어차피 모든 경주에는 일등이 있게 마련인데.
이 마인 댓 버드라고 하는 말의 아버지는 버드 스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2004년에 켄터키더비에 버금가는 경마대회인 벨몬트 스테이크스라고 하는 경마대회에서 모든 사람이 우승마로 점쳤던, 그리고 그 말로서는 요번만 이기면 3관왕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티 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꺾고 버드 스톤이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버드 스톤의 자식 중에 하나가 바로 2009년 켄터키더비에서 우승한 마인 댓 버드입니다.

그 말이 태어나자마자 경매에 붙여지는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것 아닙니까?
2004년에 강력한 우승후보인 스마티 존스를 꺾고 우승을 한 버드 스톤의 자식이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경매가가 올라가지를 않아요.
이유가 다리가 너무 못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다리로 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기질이 아주 못돼먹었어요,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경매장에 나오기 전에 거세까지 해버립니다, 그 기질을 컨트롤하기 쉽도록.
그러나 그 유명한 버드 스톤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단돈 9,500달러에 팔려버립니다.

만 달러가 안 되는 경주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헐값에 팔려서 캐나다로 갑니다.
그런데 캐나다에도 경마대회가 있어요, 두 살짜리들이 출전하는 경마대회에 여섯 번 출전해서 네 번 우승을 하고, 두 살 된 그 해에 전국의 두 살짜리 수말들이 출전하는 경주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래갖고 40만 달러에 팔려서 미국의 뉴멕시코로 다시 돌아와요.
각종 경마대회 나가서 성적을 끌어올리면서 드디어 켄터키더비에 출전할 자격을 획득합니다.
그런데 2세 시절에 캐나다에서 지냈기 때문에 인지도가 없어요.
그래서 켄터키더비에 스무 마리 중 한 마리가 부상 때문에 안 오고, 열아홉 마리가 출전하게 되는데, 배팅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말들의 순서로 열일곱 번째였어요.
인기가 없기로 밑에서 세 번째로 배당률이 50대1이에요.

전 배당률을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승할 가능성이 적으니까 배당률이 높았겠지요.
하여간 50대 1이라는 배당률은 10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정도로 높은 배당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배당률로 우승한 말이 1913년에 있었고 거의 백 년 만에 이 마인 댓 버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달러 넣으면 100달러 받는 겁니다, 200달러 걸면 만 달러 받는 거예요.
20만 원 걸면 천만 원이 되는 거죠, 말이 달리는 순간이 3~4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3~4분 만에 내 돈 20만 원이 천만 원으로 뻥 튀겨집니다.
와~ 이거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까?
이렇게 유명해져가지고 지금도 어느 박물관 근처에서 관상용 말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경주하는 것을 봤어요, 영화는 못보고 그 경주하는 모습만 봤는데 굉장해요.
보이지도 않던 8번 번호를 단 말이 마지막 코너를 돌고 직선으로 달리는 결승점까지의 거리에서 튀어나오는데, 2등과 6마신 반(말 신체 길이의 6배 반)의 차이가 나게 골인했어요.
이것도 역사적인 기록이래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시간 하느냐?

우리가 1장 4절부터 14절까지 예수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주, 이렇게 하늘에 계신 존재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사실 때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땅에서 사실 때의 존재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수난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박해와 유대인들의 교리 공격에 못 이겨서 예수이름을 붙드는 힘이 점점 약해

지는 사람들에게, 모세나 천사에 대한 믿음으로 보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수님만 믿어갖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는 천사와 모세보다 월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천사의 얘기만 나왔었지요.
근데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이름에 대한 접착력이 자꾸 떨어지고 희박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대제사장에게 굴욕적인 재판을 받아 신성모독죄로 판결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결국은 가장 처참한 형틀인 십자가에 범죄 한 사람으로 판결되어 넘겨져서 죽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봐,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그러지 않았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제사장도 신성모독죄라고 결정했고 로마법으로도 정치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아니, 이 사람을 믿는 게 이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왜 그분께서 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답이 10절에 보면 '우리들이 영광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수난과 십자가를 겪도록 했다, 죽음을 맛보심으로써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하는 구원자로서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시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난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신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을 그분이 받으시고 당하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과제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과 십자가를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하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름이라고 따로 명시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해왔으니까, 이름이라는 걸 의식하면서 마태복음 19장 29절을 읽어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것들이 다 경주마라는 거예요.
집 자체를 내 마음 안에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또 자식이라는 존재자체를 내 마음 안에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식, 그리고 내 재산, 돈도 내 마음에 집어넣을 수는 없고 돈이라는 이름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들에다 우리 마음의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배당금이 뭐예요?
예를 들어 자식이라는 경주마에 우리 마음을 배팅하는 이유는 어떤 배당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식 키워서 좀 신나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자식 키우는 거 아닙니까?
자식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것은, 자식 없이 완전히 기쁜 다음에 더 이상 자식과의 관계에서 내가 기쁘고 슬프고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식의 일만을 생각할 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자식을 기르는 동안에 그 자식을 통해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려고 한다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배팅하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사업이 잘되고 못되고 상관없이 내가 온전히 기쁘고 만족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임하면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지 않고 사업이 잘되고 못되고에 따라서 내가 기쁘고 슬프고가 좌우된다면 사업에 배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이라는 경주마, 자식이라는 경주마, 가정이라는 경주마, 직장이라는 경주마, 이런 모든 경주마들이 과연 내게 우승의 기쁨을 통해서 배당금을 줄지 안 줄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줄지 안 줄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죄악의 상태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기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만족과 감사가 있는 동안에만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기쁨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사실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는 필수요소인 이 기쁨이라는 게 죄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돼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타락, 죄악에 물들어버린 타락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라는 것은, 이 동산 바깥쪽으로는 기쁨이 없다는 뜻이에요.
원래 사람이 기쁜 동안에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기쁨이라는 것은 에덴동산 안에만 있었고, 왜 에덴동산 안에서만 기쁠 수 있나 하면, 그곳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게 인간의 운명이고 피조적 본질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에덴 바깥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마귀가 제조한 기쁨인 마귀표 기쁨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기쁨들이에요.
설정된 기쁨이고 속임수로서의 기쁨인 거예요.
예를 들면, '돈 벌면 기쁘다'
우리는 완전히 세뇌돼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입이 저절로 환하게 벌어집니다.
장사도 무일푼이면 안색이 변한다고, 아무리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도 그 능력 때문에 돈이 들어와야 기쁜 거지, 능력만 갖고 있다고 기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마귀가 설정한 마귀가 조작한 인위적인 기쁨에 완전히 세뇌돼버린 결과에요.
일류대학 들어가면 기쁘다, 벼슬 하면 기쁘다, 육체가 건강해서 오래 살면 기쁘다.
이 세상의 각종 경쟁에서 이기면 기쁘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다~ 가짜 기쁨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사이비 기쁨도 약간은 기쁜 느낌이 들 수 있죠, 왜냐하면 세뇌돼버렸으니까.
그게 기쁜 거라고 믿게 돼버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고 이 세상의 각종 경주마를 택하고 마음을 배팅하면서 삽니다.
경주마의 이름들이 집, 형제자매, 자식, 부모 재산이라는 거예요.
돈, 출세, 일류대학, 일류직장, 고속승진, 사업 번창,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도 기쁠 수 있다는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우리가 마음을 배팅하는 경주마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원하는 건 하나에요.
제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라는 얘깁니다.
우리 인간은 다 몰라도 마귀는 알아요, 절대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궁극적이고 온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 인간에게 바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없이도 기쁠 수 있다고 믿어라' 이겁니다.
이런 죄악 된 세상, 가짜 기쁨을 위한 각종 경주마의 이름이 난무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거기에 배팅하고 있는 경마장에 예수님이 경주마로 등장을 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경주마로서 당신의 이름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이름이 네 마음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네가 재산이라는 경주마를 타고 기쁨을 추구하려고 했다면, 내 이름으로 네 마음 바꿔서 배팅하기 위해서 네가 이미 배팅하고 있던 재산이라고 하는 경주마를 버려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람들한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예수라는 이름을 받아들였는데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돈이라는 경주마를 배팅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이름

을 붙잡습니다, 돈이라는 이름의 경주마에 배팅을 한 상태로.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뭘 원하느냐 하면 '내가 배팅한 돈이라고 하는 경주마가 일등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러고 쫓아다닌 겁니다.
예수이름을 받아들였는데, 나라가 독립할 때 자기들이 장관 자리 하나씩 얻겠다는 벼슬이라는 경주마에 배팅을 한 상태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좋다! 그대로 날 따라와라'
그래서 예수님 이름 붙잡고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십니다.
오직 그들이 벼슬이라는 경주마에 배팅한 채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갔는데, 그것을 잘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음에서 벼슬이라는 경주마의 이름까지 같이 죽여 버린 겁니다.
벼슬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밖에 있어요, 그 이름을 죽여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올라타고 있는 자식이라는 이름을 죽여 버리신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배팅하고 있는 고속승진이라고 하는 이 경주마의 이름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여 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할 경우, 우리 마음이 배팅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예수이름밖에는 없는 겁니다.
예수이름밖에 없으므로 우리 마음이 예수이름에 다 걸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
이제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예수이름이 내게 주면 얻는 거고, 아니면 못 얻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통과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한 채로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이 했던 대로 내가 배팅하고 있는 경주마에 마음을 그대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배팅하고 있는 경주마가 일등 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범죄고 죄악 된 소원을 더 왕성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돈 잘 벎으로써 기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돈이라는 경주마를 타고도 기쁠 수 있다는 마귀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 배신이 완성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라 이겁니다.
십자가를 지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나감으로서만 하나님만으로 기쁠 수 있는 상태가 회복이 될 텐데, 왜냐하면 마음에서 기쁠 수 있다고 그동안 마귀에 속아서 믿었던 모든 경주마의 이름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라야 다 죽으니까.
그런데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생활화하지 않는 겁니다.
왜 생활화라는 말이 필요하나 하면,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이름에 다 걸고 살다가도 내일 사업장에 나가서 사업이 잘 안 되면 또 근심과 걱정에 확 싸여버려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또 사업이라는 경주마에 배팅을 하게 돼버리니까.
사업이라는 경주마가 잘 못 달리는 것 같으니까 안간힘을 쓰는, 경마장에서 자기가 배팅한 말들이 뒤쳐질 때 진땅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이 돼버린다는 얘깁니다.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화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내 마음을 배팅하는 그 믿음이 계속될 때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깁니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휩싸여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산의 예 아닙니까?
주님이 하나님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지금 그런 모습이실 거예요, 빛의 덩어리처럼 보이는 그 영화스러운 모습을 보자마자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경주마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내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마음을 배팅했던 모든 경주마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좀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와 주님의 모습을 딱 보여주시면 안 믿을 사람이 없을 텐데, 왜 안 보여주시냐고.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 영화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신병자지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도 내 마음을 다 배팅하려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화스러움, 아직 안 보여요.
그런 상태지만 주님의 이름에 다 거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내 마음이 자꾸 죄적 습관을 따라 마귀에 세뇌당한 잘못된 신념을 쫓아서 자꾸 다른 것들에 올라타고, 그것이 안 되면 걱정하고 잘되면 기뻐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습관을 십자가에서 다 죽여 버려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경주마의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오직 예수이름에만 내 마음을 다 배팅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교제하는 단계

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의 습관이 자꾸 다른 경주마에 배팅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경주마의 이름들을 다 지우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겁니다.
내가 죽은 것처럼 돼서 내 마음의 경주마들의 이름을 다 죽여 버리시는 거죠.
그렇다고 내 바깥의 자식이 죽는 게 아니고, 내 바깥의 직장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이름에 우리 마음의 전부를 배팅하게 하시려고, 다른 경주마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그 이름을 다 소멸시키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지요, 다른 경주마들에 마음을 배팅하려는 내가 죽어버리는 거고.
그럼으로써 에덴 타락 이후 마귀에게 속았던 삶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50대 1과 같은 엄청난 배당률이 분명한 예수이름에, 우리 마음의 전부를 배팅하는 신앙생활이 오늘도 계속 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